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印刷人
定價 一個月 壹圓 ... 廣告料

朝鮮民族의反省處(下)

勤勉力을出하라

돌재로朝鮮人의缺陷은 勤勉力이不足하도다 在來朝鮮社會에서 엇더한人物을羨慕하얏스며 엇더한生活을切願하얏는가 一言으로斷定하면 놉고먹는사람이라하겟도다 흔히稱道하기를 某村某는 十指를不動하고 四肢를高掛하야도 炎天이면 清風樓閣에 冬寒이면 長房溫室에서 衣錦食玉하니그러한上八字가 어대잇는가 畢竟이러한사람은 前生에서 積善積德한結果 키와갓치幸福스러운生活을한다하야 毫末도疑訝치아니하며 驚羨치아니할리가업스며 追從의傾向이不無하도다 이러하야 勞働은應役과갓치看做하며 遊食은天仙과갓치 생각하야 昨日到城郭 歸來淚滿巾 偏身綺羅者 不是養蠶人 이라하는 悲哀吟을 聞하게되얏도다 試思할지어다 萬一人生此世에 一指를不動하며 半步를不移하고 飽食暖衣하야 無爲無能하는것이 第一人上八字라하면 當初出生時부터 畸形跛蹇이되는것이 何옥히 第一人되기에便宜하며 上八字되기에合當치아니한가 加一層深刻하게말하자면 寧히生命을短縮하야 木乃伊가되며 標本偶像이되여北邙山이나 博物館에安置長保하는것이 優勝한點이有하도다 噫라 朝鮮人은엇지하야偶像標本을羨하며 半身不遂를可願하는가 天이人을產出함에 耳目口鼻를許與하며 四肢百骸를具備케함이 엇지他意가잇스리요 이를用하며 이를勞하야 汗을用하며 血을流하야도 精神上으로나 物質上으로 無窮한自然界의 寶庫를開拓하며 無限한 運命을自己가開拓할것 自己의 運命을 自己가開拓할뿐아니라 아울나 人文發展을促進케하는것이 그目的이며 그意見인줄을確信하노라 왜-强盜竊盜와 詐欺橫領에對하야 그와갓치厭惡心을發하며 憎惡心을出하는가 自己의汗血을不食하고 他人의勞働結果와 勤勞所得을그대로奪取하려함이라 그러면 此世에서 十指를不動하고 游衣游食하는徒輩는 竊盜强盜의類며 詐欺橫領의伴侶인줄을 看破할것이라 吾人은엇더한사람이 崇拜할人物인가 自己가自己의 汗血로自己의生活을完成할뿐아니라 그勞働의結果와 勤勞의餘澤이 一世에被하며 萬代에傳하는것이 男兒의意氣며 敬仰할事業이라 元來人生이 勞働이아니면 그價値를發揮할수업스며 그事業을完成할수업나니 그러무로勞働은人生의義務인同時에權利인줄을自覺할것이니 이러한意味에잇서서 勞働의神聖이잇스며 勞働의平等을說할것이라 人의天賦한能力은限하야는 勞働價値를發揮할수업슬스나 그分量의大小가有하며 勞働價値의多寡가有한다할지라도 人格에至하야는 어대까지平等이라할수가잇스니 例를言하면 一國의首相과巡査 會社의重役과職工이 그責任範圍의廣狹이有하고 事務分掌의大小가有한다할지라도 自由意思로 그權利를承認하며 그義務를服從하는데至하야는 毫末의差가無하도다 在來의慣習이 居牛者에對하야 그職業을賤待하며 人格外지도劣視하얏스나 萬一吾人으로하여금 食肉의必要를認定하면 그職業이 반듯시賤職이아니며그人格이반듯시劣等이아니라 人民의生命財產을保護하는職責을가진官吏나 人民의衛生滋養에必要한職業을實行하는居牛人이 그貴賤의差別이 何處에有하리요 엇더한點으로觀察하면 官權을濫用하야 人民의膏血을搾取하며 國柄을幻弄하야 不義의富貴를享樂하는 浮浪黨徒의頭領에對하야 도로혀 居牛人의心事가 얼마나貴重하고 善良하며 職業이 얼마나貴重하고 寧히遊食無爲하는것을 上八字라하고 勤勉勞働하는것을賤視하는 朝鮮同胞여 明目張膽하야 現代文明의眞髓를理解하며 大勢를透視할지어다 天空에縱橫하는電氣線이 決코遊衣遊食之徒의夢想할바안이며 耳朶에雷鳴하는汽笛聲이 無爲無能之輩의生心할바아니라 孜孜勤勤하야 日以繼夜한勞働의 結果가아닌가 在來의朝鮮民族이 그와갓치遊食第一이요 勞働賤役이라는腐敗한觀念을把持한結果 生存競爭의劇烈한潮流를對하야 不知所措하는中에 若干의土產物은 全部外國商品의征服한바가되고 日을隨하야 殘餘한土地도 他人의手中으로沒入하게되니 死活의危機가 今에至하얏도다 이窮狀을挽回하는方策이如何오 第一緊且切한問題는 朝鮮民族으로써는 男女老幼를勿論하고 精神上으로나 肉體上으로나 勤勉努作의觀念을徹底히하야 深刻한覺醒이잇지어다 이것이朝鮮民族의復活하는方法의二라하노라

印度의獨立運動(五)

鼎言生

獨立運動의最近

印度의獨立運動이 日々時々로猛火의勢를有케됨은 先述한바諸原因과 彼等의活動과如하다 然한데彼等運動에 一層의導火線이된것은 大戰終結로平和會議를開한後 米國大統領「윌손」氏의民族自決이 그것이다 大戰當時에在하야 英國이召集한 印度兵의數는實로三十萬以上에達하야 英國陸軍戰鬪隊의 大部分을占하얏스며彼等은每樣困難한 戰鬪線에立하얏다그리하야 無辜의印度民은 大戰의結果로말미암아 實로十萬以上의生命을 血雨中에 犧牲化하얏다 如斯히 一朝의有事時를當한즉 英國이 印度로부터 被한恩惠가不少하얏다 過去로 英國에對하야 特히大戰當時에至하야 三十萬의大兵募集에 應하얏스며 十萬以上의生命이 英國의運命을爲하야 犧牲化함은 實로印度人에依하야 大理想이含한것이다 此大理想이라함은무엇인가? 即世界大戰에當하야 大軍에應募한代償으로 印度人은 悠久의宿望된 印度의獨立을希望함이다 此代償外에印度가獨立을提唱함은 또한大戰後平和의產物인 民族自決主義에도適合한것이라하야 다그리하야此의先決條件으로써 스와라지(自治)의請願書를如左히提出하얏다 (一)印度總督은 速히自治制의實行에努力할事 (二)槪觀 郡役所等은 速히中央政權으로離하야自治獨立케할事 (三)印度人中으로부터 人材를廣히登用할事等이엇다 此要求에容치아니한즉印度의國民的運動은 何時外지든지繼續할것은 火를見치아니하야도 明瞭하얏다 一方으로彼等의運動이 尋常치아니하고또한 他方으로는大戰의重恩을蒙한英政府로는印度의事態를容易치아니하게 見하고此의對應策으로써 倫敦駐在의印度事務大臣을 急히印度에赴케하야印度總督과 協議한結果 相當先鎭撫策으로써 自治制와相距가遼遠치아니한 所謂改革案을議會에提出하야 他의自治領과同一히할事를發表하얏다 然이나 「간듸」氏의非協同運動이生함과同時에 自治制를希望하는 改革主義者에勝하야 獨立主義者의 理想은더욱根固함으로써 따라서政治犯人의數는 當局이 嚴酷히 監視할사록激增하얏다 그리하야最近의英政府로부터 發表한바에依하건대非協同運動이 起한後 死刑者數가 一八六名의多數에至하얏다 此一八六名의死刑者中에 年齡의別로써見할진대 十六歲未滿의少年이一名 十六歲로부터二十歲에至한靑年이四十八名 二十一歲로부터二十五歲外지가七十六名이오 此를更히職業別로示하면 學生이六十八名 無職者가二十四名 商店員이二十名 新聞記者가五名이로다 또한國外에放逐된者가 年々百名以上이오 入獄者가五萬以上이라此의大部分은 何者든지學生과靑年이占하얏슴으로써 願히注目할事이라한다 以上의發表는英政府의發表임으로 多少의眞算을秘密에附치아니한與否를判知키難하나 何如間多數의犧牲과多數의拘束者가有함은 何人이든지可히知할것이로다

然而如斯히印度人의 政治思想獨立主義가膨脹한中 彼等으로하야금 또한獨立運動에 一大刺戟을與한것은 大戰이終決하기外지는 聯合國이土耳其를分割치아니할事를 印度人의게約한것을不拘하고 英國은스스로約束을破하고「메소포타미아」及「시리아」를取하며佛國도此에做하야「시리아」를占領하얏다 此와如히約束을破棄한英國에對하야는 印度人의回々敎徒로는微弱치아니치못할事實이다 何故오 土耳其人도또한回敎徒인同時에 「마호메탄」族된異常의親愛는 變치못할것인故이라先述함과如히 英國政府가印度人으로하야금 土耳其軍을抑壓케함은「土耳其를分裂치아니함」條件下에서行한것이라 然而如斯히違約하야英佛이共히土耳其를分領코자함은 單히回敎를信하는印度人뿐아니라 埃及人「시리아人」「아라비아」等도 然하얏도다 그리하야大戰當時에 土耳其를抑壓하던印度人은 返히土耳其에對하야 强한同情으로變하야 破約을憎惡함과同時에 英의[illegible] 此뿐아니라印度內에在한 特히回敎徒印度人의紛糾가起하야「아우리스알늬」과「라호르」等에在하야 銀行, 停車場, 大會社等을燒火하며 大히獨立運動의煽動을他印度人과 一致努力하얏다

라인江畔에서(八)

=獨逸地方旅行紀=

金俊淵

羅馬法皇과皇帝와의衝突이잇섯슴니다 皇帝는數日동안을羅馬法皇에게가서謝過하고前交를恢復하기를哀乞한일도잇섯습니다 政治에干涉하고 보죽得失이잇술겟지만은 한번貨勢力을어더서 잇슬때에는 別로그런일이업셧 羅馬法皇이敎會안에만 목들어 것은勿論이엿섯습니다하지만은 하나님의代表者라는것을籍稱하고 信者에게臨하기를破門이라는武器를가지고해서 絕對服從을强要하엿섯습니다 하엿지만은 文藝復興으로因해서 예수敎만의世界는얼마음動搖를바닷고 印刷術의發達로因해서 여러가지書籍 더군다나聖經이널리 一般人民사이에頒布되고「아메리카」發見等의大事實로因해서 歐洲의思想界는얼마즘不安해가지는때이엿습니다 이러한때羅馬法皇은 이形勢를看破치못하고革堂낫잡이김혀습니다예수는 하나님의代表者다 「페드로」는 예수의代表者다 自己는「페드로」의代表者다 함으로自己는 하나님의代表者다 함으로 自己는罪를赦免할權能을가젓다고 論理를發展해서 朝鮮景福宮[illegible] 으로써羅馬에다「聖페드로」寺等을 지으려하는것을[illegible] 免罪符라는것을팔앗습니다 해서 「루터」는羅馬法皇이 이러한權能업는것을主張하 聖經은羅馬法皇이나그의部下되는神父만이解釋할權利를가진것이안이라 各個人은自己의良心을따라서聖經을解釋할수잇다主張하엿습니다 해서「루터」는羅馬法皇의게破門을當하얏습니다 一千五百二十一年에「보름스」에서帝國議會가열렷는데 皇帝는「루터」를불러自說을取消하라고하엿습니다 하엿스나「루터」는 堂々히自己所信을말하고 屈服치아니하얏습니다同年五月二十六日「보름스」勅令으로「루터」의新說을抑制하고 「루터」를國外로放逐하기로하얏습니다 하엿지만은即今이곳에와서보죽 「루터」의銅像은勝利者의깃봄을가지고 萬사람이우러러보게되엿두럿케잇습니다 그뒤의帝國議會議事堂도 即今남어잇습니다 이「보름스」에잇는「루터」의銅像은一千八百五十六年에始作해서一千八百六十八年에完成된것인데 그規模가매우宏壯하고 그前後左右에 그의新說에協力하고支持한여러사람의銅像이擁圍하고잇습니다 그銅像正面에는이와갓튼말이쇠여저잇습니다 『내가여긔서잇다 나는달리할수업다 하나님이시여! 나를도와지이다! 아멘!』

十九日午前 「보름스」를下直하고 「옷펄다우」「얼펠펜」을지나서 「다름쉬타트」로갓습니다 『보름스』와約一時間이걸림니다 『다름쉬타트』는 별로볼것이업지만은그것이以前『헷센』大公國即今『헷센』自由國의首府이기때문에잠간들러가본것이올시다 『헷센』은上『라인』地方의한적은나라인데 面積이우리朝鮮道로처서 四千七百五十六方里요 人口가百二十八萬이올시다 『보름스』도亦是이『헷센』自由國에달렷습니다 『다름쉬타트』는人口가九萬인데 工業都市올시다 市街가좁으레서多少間허술해뵈이나 人物은即今外지 보와온中에第一쎄지는것갓습니다 여긔와서야外國兵丁의얼굴을안이보왓습니다 말나서사람의生活이퍽安樂해뵈입니다(此信完)

VIA AMERIKA.
HERRN CHIUN YUN KIM
BEI ROMAIN,
HEINRICHSTR. 24,
POTSDAM,
DEUTSCHLAND.

맑스勞働價値說에對한批評의批判(九)

七의續

그러나 맑스의價値說이 商品은如何한境遇에든지 決코價値로부터分離할수업는것을主張하는者일것갓흐면 맑스의「價値論이依立하는基礎-는 一八九四年의第三卷의出現을待할것도업시 二十七年前第一卷의出現과갓치「崩壞」가되얏슬것이다 맑스說의「矛盾」이라는問題가平均利潤率에關聯하야提起되고 또小泉敎授의批評이特히「勞働價値說과平均利率問題」에對한批評이된것은오히려奇異하다고할것이다

맑스에依하면 價値는生產過程에서創造가되는것이다 그러고商品流通의各段階에서는 일의創造된剩餘價値가實現될뿐이다 換言하면生產過程에서創造된剩餘價値는 商品流通의各段階에在하야各々相異한價格으로서 一部分式實現되고 最後消費者의手에入할時의價格에依하야 비로소그全部가實現되는것이다 이럼으로商品이生產者의手를離할時에는 그價値以下에賣買되는것이普通이오 이와갓치하야生產過程에서製造된剩餘價値는 商品流通에使用되는不生產的資本-間에分配가되는것이다 그런즉價値는生產過程에서만製造되다하는맑스의說은當然히商品은價値以外의價格으로賣買되는것을豫想하는것이라 따라價格이價値로부터分離함으로因하야 맑스의價値法則이「崩壞」한다할것갓흐면그는平均利潤率의問題를待치아니하고 그以前에발서崩壞가되얏슬것이다 다만右境遇와平均利潤率의境遇와差異가有한것은 右境遇는 價格이價値以下에分離하는境遇이나 平均利潤率의境遇에는價格은價値의上下에分離하는境遇이다 그相異는오직此에不過한즉 이것이萬一「絕對的勞働價値說」의拋棄를意味할것갓흐면 맑스는「資本論」第一卷에서 아니라「資本論」第一行을쓰하기前에 決然히「그絕對的勞働價値說」을拋棄하얏슬것이다 이와갓치 맑스에依하면 商品의價値 特히그剩餘價値는 流通過程이 終結되는時에 비로소그全部를實現하야 商品은그價値대로賣買가되는것이다

그러나 이에 「그價値대로賣買가된다」하는것은 平均利潤率이라는攪亂的要素가除外된것을前提로하는것은勿論이다

如此히맑스는 價値의法則을在先純粹한單純한基本的形態에在하야 即何等攪亂的要素가存在치아니하는狀態에置하고考察한것이다 換言하면 精密히同一한分量의價値만이交換되는狀態下에서如何히하야剩餘價値가生하는가하는것을考察한것이다 그다음에맑스는 如斯한價値法則의作用을阻害하는第一條件을提起하얏다 即生產過程內에서製造된剩餘價値가 流通過程에關與하는資本間에分配되는作用으로써하야 商品의價格이「必然한理由」에依하야 또그「必然한理由」가存하는程度를따라價値로부터「離反」하는것을說明하얏다 그러고第三段에至하야 맑스는更히攪亂的條件의또하나를受入하얏다 卽資本의有機的構成의相異로부터來하는平均利潤率의作用이그것이다 此作用으로써하야 商品의價格은 또그시「必然한理由」에依하야「必然한理由」가存하는程度를따라 價値로부터「離反」하는것을分明히하얏다

부터의이그著「맑스學說體系」內에서「市場의競爭의結果 生하는價格이自然히그標準價値의方向으로引着이된다」(九五頁)한것은 右第一段의說明이오「同著者」가第三段의說明에移하야 (二一○頁前後에서) 商品의價格은 「必然한理由」에依하야價値와一致되는妨害되는範圍에在하야는 決코價値의方向으로引着되는것이아니라 (引着되기는하나一價値와同一한點外지引着되야 도相一致되지못하는것) 고「自認」한것은當然自明한것이오 此를決코「矛盾」이라하지못할것이다 이를矛盾이라함은 確實히「誤解」일것이다

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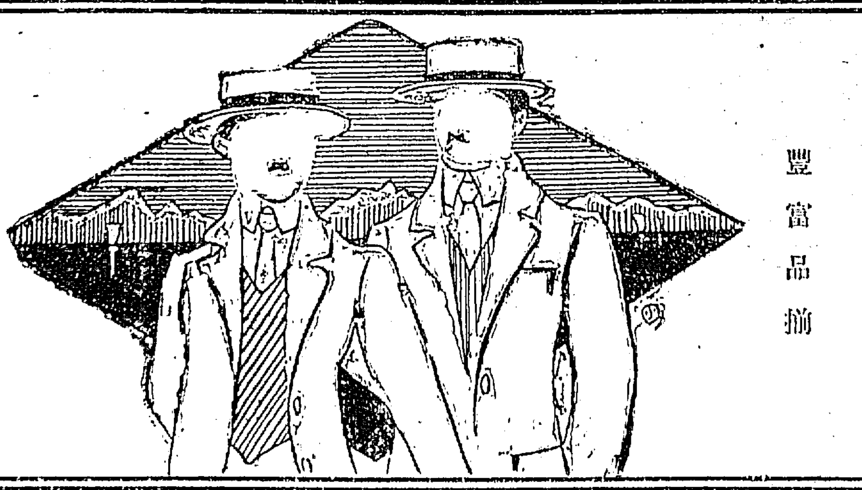
부터의比喩를借用하면 막스는先 眞空의落體의法則을立하고 다음에物體의性質과形狀이라는攪亂的條件을受入하야 [illegible] 一秒間에九百八十二[illegible] 加速度를適하는것을論定하고 다음에物體의性質과形狀이라는攪亂的條件을受入하야 [illegible] 그法則으로부터「離反」하는것을說明하고 更히氣流와風速이라는第二의攪亂的條件을受入하야 그런대結局 맑스의法則으로落下하는物體라도 實際에는百萬中의一物體라도 上述한바比例로落下하는것이無하다하는結論에到着하얏다하야 그落體의法則을拋棄한것이라 하겟는가 普通人의常識으로論하면 經濟上의法則을缺한假說은 엇더한必然한理由도 假定의原則으로부터「離反」하는 그假定이되는것이라 [illegible] 으히려原則그것이 立證이되는것이라 價格이엇더한距離를價値로부터 離反케하던「必然한理由」에依하야「必然한理由」에依하야 此로써그法則은오히려確立된것이아닌가

社告

一、分局의名稱 南原分局
二、分局의管轄區域 南原郡壹圓
三、分局의位置 南原郡郡內
四、分局長의職氏名 分局長 韓泰鉉 總務兼記者 邊在命

右와如히本社直轄分局을設置하얏사오니管內에居住하시는本報愛讀諸位는新聞講求及廣告申託에一切을直接交涉하시압소서

東亞日報社



實用夏服賣出

盛暑用旣成品 豐富品揃

十二圓으로 十八圓사지

盛暑用女兒服 各種品揃

京城南大門通

丁子屋洋服店

레데이메-도스도아

電話本局 二二〇三番

營業時間午後八時限

身外無物

◎陰陽俱虛 ◎神經衰弱 ◎陰陽痿症 ◎腎氣不足 ◎房事困難 ◎早漏遺精
◎消化不良 ◎咳嗽喘息 ◎手足厥冷 ◎腰寒腰痛 ◎虛冷腹痛 ◎下焦濕冷
◎月經不調 ◎帶經疼痛 ◎赤白帶下 ◎驚悸怔忡 ◎氣鬱積滯 ◎風痺不仁

研究所 京城府薦洞八四番地
滋春屆 德盛堂

速成洋服裁縫實習生大募集

▲學生洋服及外套裁縫實習法
▲紳士洋服及外套裁縫實習法

京城府 洋服實習部 白

新着品特價提供

十八金專賣側 アンクル時計 特價二十八圓
イツケル片側 アンクル時計 特價十一圓

時計 金側 各種 貴金屬 眼鏡 京城鍾路二丁目六番地
商 普信堂時計鋪 主 玄錫柱 電話八八三番

夏期講習生大募集

英漢 漢城英語講習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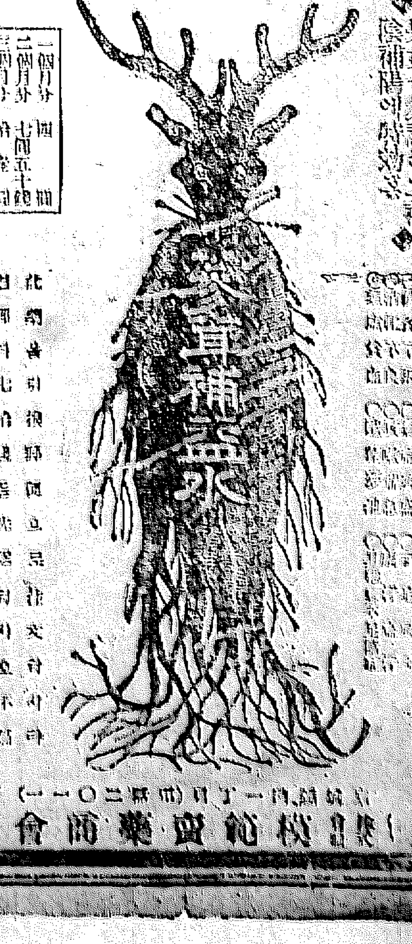
五千円

勸業債券(十円券)賣出

賣出期間 七月廿一日부터八月五日까지 初回抽籤 來十月

賣捌店 殖產銀行本支店 · 朝鮮殖產銀行

삼용보익수



男女老幼를勿論하고 補陰補陽에特効藥

洋服速成課 實習生大募集

日新洋行 洋服實習課

新式流行唱歌集

新式流行唱歌集 京城 廣文書市

永源興精肉商店

ClibPDF - www.fastio.com

排水夫又總罷業

「오쿠라호마」「테키사쓰」及「아ー칸사쓰」諸州에 在한 炭坑의 機關手排水夫及人夫等이 總同盟罷業을 宣言하얏슴으로 炭坑罷業의 形勢는 益々重大하게 되얏다더라(「마쓰코지」二十七日發)

英國石炭對米供給

＝石炭의 供給은 激減하고 六十萬의 炭坑夫와 坑主와의 間에 在한 仲裁는 失敗되얏는데 目下歐洲에 在한 米利加船舶院의 汽船四十隻은 英國炭을 米國에 輸入하도록 準備하라는 命令을 受하얏는데 此結果 每月米國에 英國炭三十萬噸을 輸入하게 되리라더라(倫敦二十七日發)

鐵道罷業과日本勞働者

＝目下罷業中인 鐵道工場勞働者代表는 日本總領事의게 對하야 加州「쎄ー카ー쓰」「킬드」에 在한 日本勞働者가 罷業破壞者와 協同치 안토록 要請하얏는데 鐵道工場에서 勞働하는 日本人의 多部分은 아직 罷業에 參加치 아니하얏슴으로 勞働者組合側에 惡感情을 招致한 模樣이라더라(桑港二十六日發)

英國에又勞働爭議
機械工手當減額拒絶

英國機械工業에 又復新勞働爭議가 起하려는 形勢인데 機械工主側은 職工의게 對하야 戰時手當의 減額을 實行하려는바 此에 對하야 全國一般機械工聯合會는 賛否를 投票로 決定하얏던바 大多數는 此를 拒絶하기로 決定하얏는데 此結果 職工側組合側代表者는 二十八日 傭主側과 會合하야 此의 處分에 對하야 討議할터이라더라(倫敦二十六日發)

加奈陀鐵道罷業決定

＝加奈陀鐵道工場職工은 總同盟罷業을 行하기로 決定하엿다더라(加奈陀電)

「콜크」陷落切迫乎

英國政府軍은 廿五日「라임릭크」를 占領한 後「콜크」의 革命軍은 最後의 根據地를 向하야 進擊中인대「콜크」의 陷落은 刻々으로 切迫되엿다더라(倫敦二十七日發)

獨의聯盟加入慫慂

英國政府는 獨逸의 國際聯盟에 加入할 事를 希한다고 言明하얏더라(倫敦二十七日發)

賠償讓步에佛同意

九月分獨逸賠償金現金支拂에 關하야 佛國은 多大한 讓步를 行할 意向이 有하며 尙且佛國은 銀行委員을 再次召集하려는 英國의 計畫에 同意하얏는데 右는 賠償問題獨逸에 對한 國債公債의 件을 協議할 터이며 歐米諸銀行家는 從來보다 고廣大한 權限으로 直히 審議를 開始하도록 案內되얏다더라(巴里二十七日發)

獨逸의大騷亂兆候
「바」政府의共和國護衛法拒絶結果

「바바리아」共和政府가 獨逸國會에서 制定한 新共和國護衛法의 施行을 拒絶한 結果로 政治上에 重大한 形勢를 惹起하야 中央政府는 數回閣議를 開하고 同問題에 就하야 熟議하야 全閣員의 意思를 聽取한 後 最後의 決定을 行하려는 中이라「바바리아」로부터 來한 列車는 皆旅客을 滿載하얏는데 右旅客等은 國內에 大騷亂이 勃發될것을 恐하야 避亂하는 이며 尙且「바바리아」議會는「레루헹에루헬트」政府信任案을 可決하얏다더라(伯林二十六日發)

露佛單獨交涉說
但露國代表는全然否認

勞農政府大使「크레쓰친스키ー」氏는 二十三日 海牙로부터 巴里에 歸着하얏고「라드쿠이노푸」「구라신」兩氏는 二十四日 海牙로부터 來着하얏는데「리트쿠이노푸」氏는 會議中「리트쿠이노푸」氏가 旣히 發表함과 如히 債主하야 歐羅巴의 產業關係者와 單獨交涉을 行할 目的으로 當地에 長時日滯在할 計劃인바 確聞한 바에 依하면 獨逸政府及獨逸政治家等이 自國의 內政에 其注意를 專有하는 間에 佛國은 旣히 當地에서 過去二年間에 直하야 露國側과 單獨交涉을 行하얏다는 說이 有한바「리트쿠이노푸」氏는 如斯한 報道는 事實이 아니라고 否認하나 獨逸官邊에서는 此의 報道는 內容에 適中한 消息이라 信하는 傾向을 示하는 中이며 二十四日 露國側의 發表한 바에 依하면 露國側과 他의 諸國間의 交涉中心地는 伯林이라 하얏더라(伯林二十四日發)

是亦一種의示威
露國委員의大晩餐會
獨逸閣員其他의多數를招待

勞農政府代表「지체린」氏는 尙且伯林에 滯在中인바 稱病이라 稱하야 來週까지는 一切의 訪客又는 新聞記者의 面會를 拒絶하며「리트푸이노푸」氏는 二十五日 外國及獨逸新聞記者에 對하야 海牙會議에 對한 演說會를 試하고 又二十六日에는 露國委員一行의 大晩餐會를 開催하고 獨逸閣員、知名의 議員及高官을 招待할터인바 此晩餐會는 聯合國에 對한 一種의 示威運動인 事는 無疑한 事實인바 衆하야 宴會는 佛國大使館의 正面이며 且聯合國及獨逸國際管理委員의 大部分이 滯留하는「우이쓰롤」「아드론」兩「호텔」의 中間에 在한 新露國大使館에서 行한다는 一層의 嘲弄的이며、露國大使館員通商部長等其他五百餘名의 參列이 有할터이라더라(伯林二十五日發)

伊國內閣組織難
「뽀노미」氏又組閣意思拋棄

「뽀노미」氏는 社會黨民主黨의 妨害로 因하야 內閣組織의 履行을 拋棄하얏다더라(羅馬二十六日發)

日本船桑港에抑留
阿片及「코카인」密輸發覺

東洋汽船大陽丸은 阿片과「코카인」을 密輸入키 爲하야 報酬하던 次 二十五日 稅關吏에게 發見되며 罰金을 課하게 되얏는데 同船은 保釋金九萬三千弗을 提供치 아니하면 桑港을 解纜키 不能이라는바 此는「뽀쓰、미라ー」法을 發布한 後 最初로 課된 事件이라더라(桑港二十六日發)

水上飛機의新記錄
一日間에大西洋을橫斷

英國航空省은 世界에 在한 最大의 水上飛行機를 建造中임을 發表하얏는데 右大飛行機는 但一日間에 大西洋을 橫斷함을 得하리라더라(倫敦二十五日發)

獨外相暗殺者
死刑執行

故「라타나우」博士의 暗殺者인「케렌」及「찌ー렌쿠」兩名은 死刑에 處되엿는데 墓地에 至하기까지 學生及前海軍士官等은 花環으로 裝飾한 兩者의 棺을 親히 擔去하고 尙且專制時代의 國旗를 揮한 花輪을 團體에서 寄贈하얏섯다더라(伯林二十五日發)

鐵船建造規程
改正承認

英國鋼鐵船建造規定은 改正되야「로이드」委員會의 承認을 受하얏는데 此規定은 船體의 船側에 使用하는 鋼鐵材料를 減하고 甲板에 使用하는 材料를 增加하야 重量과 材料를 節約할 方針에서 出한 것이라더라(倫敦二十五日發)

農露國의軍制改革

勞農露西亞軍은 第十一回勞農大會의 決議에 基하야 陸軍改革을 企圖하고 其改革案을 決定하얏는데 此에 依한즉「일크스크」「옴스크」「위러뿌스크」「크로쓰토푸」「에카테리노쓰라푸」「케푸」에 各一軍을 配置하고「페틀그라ー드」及莫斯科에 陸軍總本部를 設하고 別로 最高司令部의 直屬으로「뻐렌쓰이」軍「바로시로푸」婦人軍이 在한바 不良分子의 除去를 斷行하며 從來의 軍隊自給制度를 廢止하고 中央에 糧食省을 新設한다더라(東京電)

主力移動開始

＝「오돈」河谷에 集中이든 勞農軍은 漸次南方으로 移動하는바 主力은「아다 카이드」方面에 前進하얏다는바 右는 最近後貝加爾方面에서 白衛軍蹶起하는 風說이 旺盛함으로 萬一을 防備키 爲함이라더라(哈爾賓電)

吳、聯省自治反對

吳佩孚氏는 黎總統의게 聯省自治反對와 國務總理에 王士珍推薦의 電報를 發하얏다더라(北京二十七日發)

顏總長에辭表返還

顏總長은 二十六日 辭表를 提出하얏스나 黎總統은 極力으로 慰撫하고 辭表를 返還하얏다더라(北京電)

又復交戰準備乎
張氏砲壘新築、保定側應戰講究

北京來報에 依하면 奉直戰爭의 再燃機運은 漸熾中이라는바 張作霖氏는 新히 募集한 軍隊를 山海關에 駐屯케 하야 同地를 第一防禦線으로 하고 王家庄을 第二防禦線으로、綏中을 第三防禦線으로 하야 奮鬥에 砲壘十餘個所를 築하고 更히 多數한 間諜을 派遣하야 直隸軍의 軍狀을 探知케 하얏는데 黎總統은 張作霖氏의 此等行動에 對하야 個人으로 質問을 發하야 回答을 求하얏스며 同時에 保定側에서는 交通部에 交涉하야 車輛五十臺를 準備케 하야 第二十三師全部를 馬廠及小站에 駐屯케 하기로 하고 秘密히 應戰準備를 進行中인 模樣이라더라(上海二十六日發)

黎總統의對張勸止

＝黎總統은 最近張作霖氏의게 對하야 最近東三省自治를 布告하고 省憲法制定中이라는바 容忍키 어려우나 奉直의 鬪爭은 元來相互의 意思가 不通함에 基因함이라、胸襟을 開하고 相談할진대 必히 又復提携될 터이라 請컨대 兄弟의 爭을 止하고 國事를 爲하야 盡瘁하라는 電報를 發하얏는데 黎總統의 今次電報는 他의 一切는『敗戰한 張氏가 又復中央에 對하야 勢力을 一層恢復한 事』를 表明하는 同時에 北京政府의 無能을 示하는 것이라더라(奉天電)

省憲法制定의內容
注目할三權分立、蒙古의列入

東三省民治의 根本이 될 省憲法의 制定은 八月一日부터 着手하기로 決定하고 制定規則二十七個條가 發布되얏는데 此에 依하면 各省議會로부터 五名의 議員委員을 選擧하야 審査會를 設하야 審議할터이며 此에는 各方面으로부터 委員을 選出하기로 되얏는바 張作霖氏는 憲法制定에 關하야『立法、行政、司法의 三權分立을 圖하야 各自不犯하며 又蒙古를 三省憲法內에 列入하야 新文化에 沐浴케 하고자 하는 것으로 最히 重大視할 事라』고 하야 保安總司令의 名義로써 訓示하얏다더라(奉天二十五日發)

排日行列
許可要求

吉林學生은 排日示威行列을 行하얏다더라(奉天電)

孫文의澳門居住

孫文氏의 子孫科氏는 澳門政廳에 對하야 澳門에 在한 中國人의 同盟罷業을 調停할터이니 孫文氏等의 澳門居住를 許하라고 要求하얏다더라(上海二十七日發)

王氏의激勵通電
在上海山東省民會議

在上海山東省民各團體는 二十五日 會議를 開하고 山東問題善後、山東督辦王正廷氏의 信用問題、山東問題에 交涉에 關한 二點에 對하야 協議한 結果 王氏의게 激勵하는 通電을 發하엿더라(上海廿六日發)

財政討論委會

財政討論委員會는 二十六日午後三時부터 會議를 開하고 討論하얏는데 (一)同合의 討論할 問題의 範圍 (二)內債基金을 如何히 하야 鞏固케 할지의 二點에 就한 討論이라더라(北京二十七日發)

元帥會議內容

二十七日 開會한 陸軍元帥會議에서 陸軍縮少案을 可決하얏는데 其內容은 軍政과 行政의 二部로 分하고 軍政整理는 八月十五日부터 行政整理는 豫算通過後에 實施할터이라더라(東京電)

陸軍整理確定
淘汰五萬八千人

陸軍整理案은 遂히 二十七日 元帥會議에서 可決確定하얏는데 陸軍當局은 豫定과 如히 其實行에 着手할터인바 整理人員은 合計五萬八千四百餘이라더라(東京電)

外債決濟資金
四億七千萬

國際的決濟에 充當할 日本在外正貨는 六億四千七百萬圓으로 其中二億圓은 大正十四年償還할 四分半利附英貨公債의 準備로 取扱치 아니키 不可히며 其外四億四千七百萬圓과 以外에 多少流用할만한 財源이 有하나 確乎한 期待는 不能한 狀態에 在하다더라(東京電)

沿海撤兵
八月上旬

沿海州方面의 撤兵은 八月末頃부터 着手하고 尼港方面은 八月上旬부터 着手할 豫定인데 撤兵後 在留日本人의 生命財產의 保護에 就하야는 習多政府와 商議하기로 決定하얏스나 아즉 場所期日等은 姑未決定이라더라(東京電)

間島案交涉期

間島案의 日中交涉은 中國의 態度가 不明한 所以로 直히 開始함을 不得하고 正式交涉은 九月以後로 되리라더라(東京電)

日英米의貿易狀況比較

最近農商務省의 發表에 依한 本年上半期에 在한 英米兩國의 外國貿易狀況及日本貿易과의 對照는 左와 如하더라

英國 貿易總額八億三千九百二十六萬七千磅인대 就中輸入額四億八千七百五十一萬一千磅 同輸出額三億五千百七十五萬六千磅으로 差引入超一億三千五百七十五萬五千磅이라 此를 前年同期에 比較하면 輸入은 八千四百七十七萬七千磅(一割五分) 輸出은 一千七百十三萬九千磅(五步) 總額은 一億千九十一萬六千磅(一割一步)을 減少하얏스나 輸入의 減少에 比하야 輸出의 減少가 比較的 少額임으로 輸入超過額에는 六千七百六十三萬八千磅(三割三步)의 激減을 示하얏스며

米國 輸入十四億二千三百萬弗 輸出十八億二千五百萬弗 合計三十二億四千八百萬弗로 差引輸出超過額四億二百萬弗이라 此를 前年同期에 比較하면 輸入은 一億五百萬弗(八步)를 增加하얏는데 輸出은 此와 反對로 七億一千百萬弗(二割八步)를 減少하야 總額에서 六億五千六百萬弗(一割六步)를 減하고 差引輸出超過額에서 八億二千六百萬弗(六割七步)의 激減을 告하얏더라

今에 上述의 英米貿易과 日本의 三國貿易의 槪況을 對照表示하면 左와 如하더라(單位百萬)

輸入	本年上期	前年同期	比率
英國(磅)	四八七	五七一	△一割五步
米國(弗)	一四二三	一三一八	八步
日本(圓)	一一〇二	七九八	三割八步
輸出			
英國(磅)	三五二	三六九	△五步
米國(弗)	一八二五	二五三六	△二割八步
日本(圓)	七四二	五七九	二割八步

即日本의 輸入에 三割八步의 增加에 比하야 米國은 反히 同率의 減少를 告하얏슴은 頗히 注目할 價値가 有하더라

米國物價漸落

勞働省의 調査에 依하면 去六月中의 物價는 昨年同期에 比하야 三割三分의 下落을 示하며 昨年三月에 比하면 一分强의 下落을 示하얏는데 此를 戰前即一九一三年十二月에 比하면 尙且六割六分의 騰貴를 示하얏다더라(紐育廿六日發)

豫算編成難關은
關稅撤廢

大正十二年度朝鮮總督府豫算中 最히 重大한 問題는 移入關稅撤廢問題이라 元來移入關稅는 去大正九年三月三十一日에 限하야 撤廢하기로 決定하야 旣히 制令으로 分此를 發表하얏슴에 不拘하고 今에 尙且此를 撤廢치 아니함으로 民間側은 勿論이요 總督府에서도 問題가 되얏스나 當局者는 財政困難으로 因하야 到底히 此를 實行키 不能하다 하야 延期에 延期를 重하얏더니 今回大正十二年度의 豫算編成에 際하야 此問題가 再發되야 全鮮商業會議所에서는 繁히 撤廢를 要求하얏슴으로 當局者도 亦如何한 方法으로던지 此의 撤廢를 實行코저

目下非常

히 苦心中임과 如한데 關稅撤廢에 就하야 當局者의 苦心하는 事는 關稅에 依한 約七百萬圓의 歲入을 如何히 하야 補塡할가 하는 事이라 若大正十二年度부터 關稅撤廢를 實行한다 하면 約七百萬圓의 財源은 當然히 此를 他에 求치 아니치 못할지라 故로 朝鮮과 如히 財源이 乏少하면 新히 七百萬圓의 財源을 引出키는

實로困難

한 事이라 그러하야 何時까지던지 關稅撤廢를 實行치 아니하면 不可할지며 그래서 當局者도 此際에 多少의 困難을 冒하나 如何하든지 關稅를 撤廢하야 世人의 期待에 副할 것이 可할 것이라더라

最近財界大勢
中村殖銀理事談

財界는 依然히 不況閑散하야 資金의 需要는 減退한 관이라 東行에서도 商業、商業兩金融은 共히 至極不振하야 一般財界의 前途를 逆睹키 難함을 斷定하는 形勢이며 더욱 一流銀行은 時在資金이 潤澤하야 需要不伴함으로「코로ー」에 付하야 預金利息의 補塡에 努力하는 狀態이며 따라서 公債、社債時代와 如히 金利는 緩漫時代의 變改를 生하기까지는 不至할 것이며 各市場共히 無勢하야 京取株와 如함도 低落할 뿐인데 此도 日本內地市場의 不況에 原因함이 아니면 그러라고 顯著한 材料의 存在함은 아님으로 突入投賣에 着手하든 至極不況한 바 此財界不況은 都鄙를 通하야 現象으로 鎭南浦、新義州와 如함은 至極不況한 模樣이라 時況은 當分間 如斯히 推移하리라 觀測된다 云々하더라

總督府豫算
明年度

總額約一億五千萬圓

明年度朝鮮總督府豫算은 過般以來로 連日審議中이던바 頃히 大體의 査定을 終了하얏슴으로 今回中에 更히 豫算審議에 附하야 確實을 期하게 되엿는데 其後審議한 後 八月初旬까지에는 完了하야 中央政府에 送付할터이라는바 總額은 前年度와 大差가 無하야 約一億五千萬圓인데 豫算節約方針을 取할터이라더라

整理委員會

總督府行政整理委員會는 二十八日午前十時부터 前日에 引續하야 水田主事官、安武其他各委員이 出席하야 本府各事務官室에서 開催되얏는데 午後에도 引續開催하얏더라

産鐵用地買收完了

朝鮮産業鐵道株式會社에서는 旣히 金泉尙州間의 土地買收를 完了하얏슴으로 近々軌道敷設에 着手할터인데 本年結氷前에 軌道敷設을 完成하기도 至難할터인 則其中에는 二三個所의 隧道가 有함으로 請負者側에서도 相當히 苦心하는 中이라더라

朝鮮食糧品々評會

朝鮮食糧品々評會는 來十月一日부터 同七日까지 府內長谷川町京城商業會議所에서 開催한다 함은 旣報와 如하거니와 主催者朝鮮食糧品同業者側은 諸般準備에 奔忙中이라더라

海事事務協議延期

遞信局에서 二十五日부터 三日間의 豫定으로 開催中이던 海事出張所長事務協議會는 豫定期日內에 終了치 못함으로 二十八日二十九日 兩日間을 續行할터이라더라

勸業債券賣行狀況

朝鮮殖產銀行其他普通銀行及各金融組合에서 賣出하는 中에 在한 勸業債券은 十圓券으로서 每年一定한 利息을 得할 것으로써 確實한 貯蓄的放資物로써 크게 歡迎을 受하는 바라더라

關釜連絡船延着

今朝入港한 關釜連絡船新羅丸은 濃霧로 因하야 二時間三十分餘의 延着임으로 十時發特急列車도 三十分間延發車하얏더라(釜山廿八日發)

辭令

二十六日付로 左와 如한 辭令이 有하얏다더라

[illegible]

消息

▲有吉政務總監은 就任以來로 連續히 政務에 過勞함인지 元氣가 衰退되야 頗히 不健中에 在하던바 昨二十八日朝에는 更히 泄瀉로 因하야 目下旅館인 朝鮮「호텔」에서 加療中

橫說竪說

▲豫算審議의 中間에 政略的으로 出한 總督府의 所謂行政整理委員會는 連日開會하고 何事인지 審議한다 하나 아직도 具體의 案은 어든 것이 업다 한다 ▲如何한 具體案이 委員會로부터 產出되든지 本來多大한 期待를 此에 寄할 것은 아니며 事務官數人이나 屬官數十人을 馘首하는데 不過할 것이오 一二의 局課가 廢合된다 하면 此는 反히 意外의 事이라 할 것이다 ▲外間에서는 此整理委員會의 結果로 豫算도 完定되리라고 傳하나 整理의 必要가 甚多하리라는 批評이 잇는 總督府의 某部局이라든가 某局에서는 吾等所管의 豫算은 完定이 已久라고 長以下가 太平歌를 부른다 함으로도 整理委員會의 價値를 推知할 것이다 ▲一說에는 此委員會로 行政整理의 實을 擧하려 함보다 如斯한 機會에서 總督府內의 事情을 通曉하라는 것이 此를 創設한 有吉新政務總監의 眞意이라 한다 但其眞僞의 與否는 記者의 保證할 바가 아니오 有吉君本人의게 問하라

商況

株式市場
大新大暴落
京取六十三圓臺

[illegible]

日本金利及金市況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外國經濟電報

倫敦銀塊 [illegible]

紐育銀塊 [illegible]

紐育棉花 [illegible]

大阪三品 廿八日前場

限月	寄付	大引
八月	二五八、四〇	二五八、五〇
九月	二五九、二〇	二五九、五〇
十月	二五九、六〇	二五九、三〇
十一月	二五九、〇〇	二五九、〇〇
十二月	二五八、〇〇	二五八、〇〇
一月	二五八、二〇	二五八、三〇

大阪株式 廿八日前場

株名	寄付	大引
大株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商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東紡	[illegible]	[illegible]
日糖	[illegible]	[illegible]
北取	[illegible]	[illegible]

京株賣買高

廿七日의 京株市場의 賣買成立高는 如左하더라

甲部 一千一百四十枚

乙部 一百二十枚

短期 七千八十枚

阪仁綿絲 (百四十二)

[illegible]

京株賣買價 (廿八日)

株名	前場 今週	前場 來週	後場 今週	後場 來週
京取 止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 止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新 止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銀 止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止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殖銀 止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止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實銀 止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銀 止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止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拓 止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紡 止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綿毛 止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電 止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鐵 止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郵 止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鑛 止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穀物標準價

[illegible]

綿絲布標準價

[illegible]

貴金屬 時計 村木時計店

虎力丸 大華藥房

新義州分店

裁縫機械附屬品 針油販賣 [illegible]

黃金館 寒椿 사ー가스트 法의 娘 [illegible]

商況

昨後場은 大阪步調甚히 軟弱하게 新十丁低落三十七圓四十錢에 外지 低價有하얏스나 오히려 强硬하야 五十 大阪止價는 又一層激落七圓을 傳하니 當地는 俊十文低落低移로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한날한시 죽은자는련당에떠린자는디옥에 련당을향하야 발인되는것이 우의광경이오 자월아츰 장마비가 퍼붓는중에 종로경찰서순사 그와동시에 박준순을 싸려죽인 임수창이가 포승을지고 임수창의게 마저죽은 아시상인 박준순은 참 이성의디옥인 감옥으로향하고 거 청동의자그집에서 늙은어미 어린자식의 통곡중 사국으로 드러가는것이 아래의그림 검국에서는 내량정(奈良井) 검사 고모지도 쓰지아니하고 검사덩가며 일호검사명으로임수창을호에 나라나서 죄조를밧고 나오는 습하야 대략두시간동안 엄중한 그와가튼 악한자도 커우이량심문이잇고 즉시구인하얏다 몸심의 가칙을바닷는지 사람들죽 이인민을 보호한다는 순사의직 임에 독사가치 번쩍이는두눈도 분에잇스면서 무고한인민을 초 귀운을 일코한번차서 사람의성 개가치 버려죽인임수창은 실로 명을 엔앗는발도 그우허엿나는 이세상의 악마이라 한양복을입 독하얏다

同胞의窮狀을訴코저

고국을방문한해삼위음악단 음악회를열고저경성에도착

해삼위(海蔘威)에거주하는조선사람과과격파권집에부대기어탈퀸 사람학심으로 조직된 해삼위여호가해삼위에잇는조선사람들을 악단빅행으로단장곽병구(郭炳奎)을바라고피난하야왓슴으로이번 씨기령솔하고 재작이십칠일 오후 에이와가치음악대를조직하야다 후련차로 남대문에도착 하얏는 힘히 고국인사의동정을 만히어 대다원중에는 작년에 경성에와 드면그것으로 귀갈에 부르짓는 서대환영을밧든「바이올링」의선 해삼위 동포를구호할 목뎍으로 수「김니쿨나이」군과「기다」의명 고국을 방문한것이라한다 그러 수인 채에리사베스양을비롯하 나이번에 온음악단은 비록학생 야축원 뵈꿉사람이라 으로써 조직한단테라 할지라도

다수인사 의출영을 밧고 인연이깁흔 사동호해려관(寺洞湖海旅館)에서여러날 려행에써친몸을쉬우는 중인데일행이 이번에고국을 방문한것은 평일바라고꿈꾸든 고국산천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도항상허케키어려웟스나 더욱비참한사정이 잇서고국인사들의 따뜻한 동정을 어드려와다한다 원래고국을 떠나산설고 풍속이다른 남의령토의한모퉁이에서 근々히 쉬할을 하야가든 그들은 작년에그디방일대가 한재로흉년을 당하야다수한사람이 류리개걸을하게된 참경에싸젓는데 금년초며븜 부터「이만」「씨스크」등디에 형더커살든 **조선동포** 들은 마적의침

전문가를 알두할만한 기그곳에서도 동을가진사람도잇고그중에김이쿨나이의「바이올닌」은 작년에도경성에서 대갈채를 밧든것은 일반의인상아 아즉까지 새로울터이나 요사이 진군의「바이올림」은 더욱 묘곡에 숙련하야젓스며「채에리사베스」양의 독창은 작년에도희망이 만핫스나 그때에는 불행히병이생기어 부득이중지하야 큰유감이엇든바 이번에는 그의청아한독창도 잇술터이라하며 기타로국(露國)음악의 특식「싸라라이카」와「기따」등 조선에서는 듯기어려운 취미잇는음악을 연주할터이라 한다 일행은 **칠월일일** 에해삼위를출발하야 회녕(會寧) 청진(淸津) 경유하야 함흥(咸興)등 각디를 경유하야 경성에 도착하얏는데 금일오권에는 개성(開城)으로 나려가서 하로밤 음악회를열고 경성에서는 팔월일일과 이일의잇흘동안 종로중앙청년회(鍾路中央靑年會)에서음악회를열터인데 곡목과기타모든설비를 방금 협의하는중이라더라

任壽昌押送

작일검사국에

박준순(朴畯淳)을 따려죽인 종로경찰서순사 임수창(任壽昌)은작일오전열시경에비오는중에 너름외투로 머리와얼골을 모다가리우고 두어명의순사에게 압송되야 종로경찰서로부터 경성디방법원 검사국으로왓다 검사

開城庭球戰의盛觀

학우군은병자의기권이잇서 종국승리는용맹한개성군에

일본학우회뎡구단(學友會庭球團)이서선디방원정의 데일착으로개성(開城)에서권개성뎡과개권하게되얏다함은 임의 보도한바어니와 예뎡대로 지난이십칠일오후세시부터 삼청국 코-트에서 경기를시작하게되얏다 아침부터 날은흐려서 매우우려하얏스나 날이흐리고 비가오려할도성각지만코 **모여드는** 관중은 무려수천을일우엇다 우리가치 일어나는박수성과가치 주심리종은(李琮根)씨의선언으로 용맹스러운 량군의싸홈은 시작되얏다 천개성팀은 이삼일전에야 겨우조직하야 연습도충분히하지 못하얏승으로 그승부는참으로 의문이엇섯다 처음으로 학우군김긔준(金奇俊)정규찬(丁奎燦)조와개성군한맹석(韓孟錫)김성진(金成振)조가싸우기시작하야 일대삼으로학우군이승권하고계속하야 개성군장륜식(張倫植) 윤정대(尹楨大)조와 대권하야 결국은 개성군이 또 이대삼으로 패하야 학우군에 우퇴조(優退組)가 나게하엿스며 학우군김영길(金永吉) 리상백(李相栢)조와 개성군 리련업(李連業)조와차와 또학우군이 이대삼으로 격뢰를속하고 련하야 뎡구계에 길홍이 눕흔 한진영(韓鎭永) 김명환(金明桓)조와차와 제로셤으로 학우군이패함에 장내의공긔는 십히긴장되며 박수소래는 단칠주를 몰낫스며 또계속하야 학우군 김안(金安)조와 한개성군이 삼대일로이여 우퇴조가량군에 하나식 나게되엇스며 학우군리최(李崔)조와 개성군 손왕(孫王)조가차와 개성군이 삼대이로승권하매응원하는소래와

박수소래 는 또다시이러나기시작하엿다 학우군고림(高林)조와 삼대일로 역시 또학우군을격퇴케하야 우퇴를 버면스며 그뒤를이어 개성군 김명항(金明恒) 박용학(朴容學)조와 주장 김홍길(金興吉)김홍순(金興淳)조가 학우군주장 황명원(黃明源) 연학년(延鶴年)조에 무참히패하얏스며 다만당일 한우군유박(兪朴)조는 병으로 기권이되엿다 이러케 그일회권을 맛치고량군에두조식의우조와차 옥새 학우군김긔준(金奇俊) 정규찬(丁奎燦)조를개성군 한진영(韓鎭永)김명환(金明桓)조가 익이매 관중의흥분은 극도에달하야 다만한김(韓金)조로 승니엇다 다시연황(延黃)조와 차를 시작하니 이것이

그결승전 이라 학우군의 마즈막조요 지청군은 아즉도단々한조가 남아잇섯다 그러나 황연(黃延)량군의위풍에관중은 매우긴장한 맛이잇섯스나 버권에는필경 일대삼으로 패하니승리는 권개성으로 돌아갓다그청커은 아래와가트며 학우군은이십팔일 오전한시 급행으로평양으로출발하엿다더라 (개성)

學友軍 (○勝者)
金奇俊 丁奎燦 ○ / 金永吉 李相栢 ○ / 金炳哲 安益三 / 李弘澤 祖興太 / 高昌明 林炳し / 黃明源 延鶴年 / 兪元濬 朴勝城

開城軍
韓孟錫 金成振 / 張倫植 尹楨大 / 李連業 許鎭順 / 韓鎭永 金明桓 ○ / 孫元植 王命九 ○ / 金龍四 朴容學 金興吉 / 金興淳 韓鎭永 金明桓 / 孫元植 王命求 ○ 不戰

「不法逮捕、恐喝詐欺」

此는東大門署瀆職巡査의罪目

무죄한사람을포박하야위협한후에 그것을은혜라고천원의주색을편취

소위경찰 관리중무식하고 인격업는자들이 등뒤의 세력만밋고 량민의 금권이나물품을 편취하는일이 종々잇슴은심히 통탄할일인바 본적경성부 장사동일백이십팔번디 권동대문 경찰서순사 김학희(本籍京城府長沙洞前東大門警察署巡査金鶴熙)(三五)외두명은 오래동안 경성디방법원검사국에서 취조중이더니 일건에「불법데포공갈사긔(不法逮捕恐喝詐欺)」등의 **죄목으로** 공판에 붓치엇는데 김학희는 순사다니는것을 밋고 인민을토식하야먹고자 동류오리현(吳莊鉉)김철중(金浙增)등과공모하고 재작년음력칠월이십일경에 시내 인의동려인숙김창련(仁義洞旅人宿金昌連)의집에드러가서숙박부(宿泊簿)를조사하는데하다가포천군서면선달리(抱川郡西面仙達里)에서와서류숙하는홍순식(洪淳植)을 못듣고 나는 동대문경찰서순사인대 드르닛가너는최상오(崔相五)라는 사람의토디를편취하엿다함으로 데포한다하고 포승을 꺼내서두손을 **잔뜩결박** 하매 홍순식은 겁이나서어리둥절하는데김학희의동류김철중이가나서서이사람이무죄한것은내가보증할터이니 노아달나하야포승을풀게하고또 홍순식에게말하기를지금포천경찰서에서 너를 잡으려고하는중인즉이려관에잇다가는잡힐는지 모른다하고 황금뎡사뎡목 기생김가매(黃金町金嘉儷)의 집으로다리고가서 엇커녁에 너를잡으려고하든 김학희에게 한턱을 하면 아모일업시 만드러주마고 월변으로 일변달내이어 그날커녁에 관렬동 신세계(新世界)라는료리집으로 함께가서 순사 김학희를 불너다놋코 **계집과술** 로 질탕히놀아 일백오십원을 물니고 이튼날은 관렬동 료리점 신춘원(新春園)으로 다리고가서 역시권일과가치놉고 유흥비칠백오십원을 물닌것이 발각데포된것이라더라

矯正할囚人의待遇

監獄에對한予의注文 (四)

감옥직원의조치못한태도 일본인조선인의차이여하

李昇薰

◎여러번말한바와가치사람이 가치는몸이되야 한번 감옥문안에 드러선이상에는 권리라는것은 조금도인뎡되지안코 자유라는것은 권허엡업기며 그한편으로 감옥직원의권리와 위세라는것은절대(絶對)이라할만큼크고 무서운것은 법령으로보아도 분명한일이라 그러나 감옥에잇는이상에는 실흔나조흔나 이사람들의게 매여지내일수밧게 업스며 이사람들이 법규에뎨한대로만 직히다하야도 가처잇는사람을 징치하는감옥의목뎍은 도달할것이라

◎법규를정당히또한공평히준행하는데대하야는비록가처잇는사람의게고통이된다하야도이는엇지할수업는일이라 불평을 품는사람이 도로혀 싱각이적다고할것이며현대의감옥데도와지금의시세현편에잇서서관후하고인자한대도로써 아모조록 가친사람의고통이 적도록 힘써달나고 주문을하야도 감옥관리는 도로혀 어리석은사람이라고 우슬는지 알수업는일이지마는 감옥의직원이 아모리 가친사람의게 대하야 강압한것을하든지 탄하야 항거할수가 업는것만 다행히녀여서 법규의한뎡을버서서서 직권을람용하며 가친사람을 학대한다하면 이것은 실로 인도상(人道上)의 큰문뎨이라

◎나의 가처잇든 경성감옥으로말하야도 드나의눈으로보고 귀로들은바에 이러한권례가 적지아니하야 그중에도 심한몃가지 권례는 뎐옥중료씨를 맛낫슬때여 리약이한일도잇슴으로 자세한사실은 구태여 이케다시세상에 발표코하지안커니와 감옥당국자의 이케부터 가장힘쓸것은 이러한폐단을 급히교정함에 잇다하노라 즉법령의 한도안에서 가친사람의게향하야 아모조록 친절히하야 줄뿐 또한가친사람을 대우함에 사사마음을 두지말고 공평하게 처단할일 가친사고따리는 습관을버릴 일등이 가장긴요한 것이라 이켜이면에 대하야사실의권례는들지안코다만폐해의대강을말하고커하노라

◎감옥직원에는 뎐옥의 아레에교회사 과당 간수장 간수부장간수등의 여러계급이 잇는데 더개불것가튼면 아레로 나려가 직컴가친 사람의게 컴々할귀회를 드러보면 그러사가 가혹하지아니한가 하는혐의가 잇는일이라 그것은가친사람이 만히컵촉하야보든 싸닭에자연 그러케 싱각되는덧도 잇슬는지 모르나 싱각으로만 그런것이아니라 사실로도 그러한일이잇스면 가리지못할사실임은 마치 세상에잇는사람의 눈에보이는 경찰서장과순사의 차이는분명히 잇는것이라 이것은지식뎡도라든지 기타여러가지 관계로인연하야 즐디에엇지 할수업는일이라 하겟지마는 우예잇는직원이 아래에잇는직원을독하기에세밀히주의를하며 자긔몸으로써 실행하야그모범을보이면그효험는실로 적지아니하리라하노라

◎또경성감옥에서든지 기타감옥에잇든 사람중에 혹시일본인간수보다도 조선인간수가 더욱심하다고 분개히녀이는말을 드른일이잇스나 이것은 결코오해인줄싱각하나니 그것은 사람나름이라 일본인이든지 조선인이든지 사람의청질을따라서 다른고로우면히 그닥지 심하지아니한일본인과 혹심한 조선인의게만단속을 바든사람이 자긔의경험으로 판단한말인지도 알수업스며또아모리감옥직원인사람이라도가튼조선사람이 낫가일본사람보다는 나흐려니하다가 사실은조금도 나흔뎜이업서々 실망한데서 나온것도 잇슬것이라그러나불행히 경성감옥에서는 정치범의 단속을 마튼직원중에는 과연일본사람보다 심한 조선사람이잇서々 그감옥에 한번매엿든사람으로하야금 이러한 감상을특별히깁게하얏도다

發展하는勞友會

회원의긔부다수

신호(神戶)에가잇는조선로동자 오천여명이 조선로우회(朝鮮勞友會)를조직하고 교육부(敎育部)를설치하야 지식향상과직업소개를 도모하고 구제부를설치하야 회원의긔부로 ... 금번사무소를 신호시내 ... 戶市大口通 ... 에뎡하고 ... 회원중 성원이 상당 ... 아래와갓더라

李斎雨, 辛相浩, 林昌洙, 金[illegible]吉, 鄭元浩, 金明華, [illegible]煥, 張性明, 金成龍, 金成庚, 吳允煥, 朴海俊, 金漢俊, [illegible]相利, 徐中國, 李潤澤

紡績罷業解決

싸린자는면직

부산조선방적회사(朝鮮紡織社)에서는 다수한조선인녀직공을감독하는서강뎐궤삼조(西江田淵三助)라는자가 조선녀직공음따라다니며 이에분개한녀자직공삼백명과남자직공이백여명도합오백여명이이십일이래 일케히 동맹파업을 하얏섯는데 그후동사재등(齋藤)사당의중재로 전긔서강을 해고식하고그권과가치다시일을하게되엿다더라(부산)

相思蛇는稀世의鬼胎

평양에류행하는괴괴한풍설 녀자의몸에배암이감겻다고

근일 평양부내(平壤府內)에는 엇던눈녀자가 소위 상사배암이란것이 몸에감기며 설명이위태한경우에 이르럿스며 이것을 치료키위하야 평양자혜의원(平壤慈惠醫院)에 입원하얏다는풍설이류행되야 모르는사람이 업스리만치되엿다 동시에 자혜의원시료부에는 매일 입부러더운뎡을 흡녀가면서 **구경차로** 가는사람이 뒤름이을 디경이라는데 일본녀자는강아지석기를나흔일이잇다고 떠드든 시대이지마는 얼마되지안든거리를두고 한부내에서 이와갓흔풍설이 잠시동안 떠말갓치 세력을어덧든것은 참으로괴괴한일이다 이제그풍설이 류행된원인을 잠간말하건대 평양부본뎡(平壤府本町) 삼십오번디 송두덕(宋斗德)당년 삼십륙세된녀자가 약일주일권 권긔자혜의원에 입원한일이잇섯는데 이녀자는 본년삼월경부터 월경이 단어지고 배가점々 불너옴으로 이것이 **필시아히** 를 배인것이라고만 싱각하얏는데 근자에와르러는 배만부를뿐외라 월신이 전부붓고 월경이 다시시작됨으로 비로소병이 싱긴줄을 깨닷는동시에 인력거를타고 자혜병원압헤니르러 돌연히 하문으로 붉은피를흘니며 컨국포도(葡萄)송이갓흔것이 한되가량이나나왓는데 이것은 병명으로포도장귀태(葡萄狀鬼胎)란싱식긔로의학계에서는 한번맛나 보기를 원하든병이며 병중에가장희귀한 병으로 인하야동병원에입원하기를 원하얏스나 그말이 컴々퍼지어 처음에는엇던녀자가 자혜병원문압헤서배암의석기를 무수하게나앗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엇던녀자** 가대동강(大同江)에서 빨내를하다가큰배암이 빨내광주리에 들어잇슴으로 이것을복사(福蛇)라고하면서광주리에딤어가지고 오다가 중간에서 배암이그녀자의몸에 감기엿슴으로 자혜병원에가서 엇던독약을먹이여 배암을떠이고자 하얏스나 그배암은 그녀자가먹는음식이라야만먹음으로약도먹이지못하고 성명이위태하다고 하얏스며 최근에는 그배암의몸을 갈너죽이여서 무방어던곳에 던지엿다고또한그곳으로

巡廻講座

작일부터개강

경도(京都)에류학하는조선유학생학우회는 하긔휴가를 리용하야순회강좌(巡廻講座)를만드러가지고 조선각디를 순회강연하는바경성에서는 작일부터 텬도교긔념관(天道敎紀念館)에서 삼일간 매일밤 여달시부터 텬시까지 세시간식시내 견지동 ... 장교뎡동양강습소(長橋町東洋講習所)에서 강연하는데 청강료는 오십권이리라더라

萬餘圓의中國紙幣

위조한자데포

지나간 이십오일오후에 동대문경찰서에서는 돌연히 활동을개시하야 매던경부보(前田警部補)외 다수한 형사가 모방면에 급행하야 그곳에 잠복하고잇든 시내 봉래뎡일뎡목 오십일번디(蓬萊町一丁目五一)에사는조창성(趙昌成)(五七) 리경하(李慶河)외 삼십명을 데포하야 가지고 동서에 도라온후 방금엄중히 취조중이라는데 이제 그내용을 듯건데 전긔조창성외몃명은 일마전부터 모방면으로 비밀히석판인쇄긔계와 기타여러가지 부속긔계를 구입하여가지고 시내 종로륙뎡목(鍾路六丁目)에 잇는모씨의집에서 중국지폐 일만여원을 위조하엿는데 그들은장차 이다수한위조지폐를 가지고 만주(滿洲)방면으로 건너가 무삼운동을 계획하고저하든바 텬정은공관에게 람지한바되야 권긔와갓치 데포된것이라더라

京元線不通

평강에서만히

[illegible]

駐在所의浸水

연천삼뎡의수해

[illegible]

金堤村野球團遠征

남조다섯디방에

[illegible]

兩人無事放免

대구원뎡일뎡목(大邱元町一丁目)에사는신규봉(辛圭鳳)과경상북도금천군(慶北金泉郡)에 사는 허일(許一)의두사람이 무권유실의혐의로 본뎡경찰서에데포되야 취조를밧는다함은 본보에 임이보도한바이어니와 동서에서는 사실을조사 하여본결과 두사람은 과실이 업섯스며 또는허도원(許道圓)과의관계도 원만해결되엿슴으로 그들은재작일오전에 무사히방면되엿다더라

天氣豫報	
雨	自廿八日午後十時 至廿九日午後十時
溫度	廿七日最高 八四．九
	廿八日正午 七四．九

◎온도비교◎(華氏)	
昨年同日(正午)	七四．九
昨年明日(正午)	八一．五
今年最高	九六．八

日出 上午五時三〇分 日入 下午七時四九分

휴지통

▲진남포부 비석리강태황의처박씨사십이세된녀자는 태긔가잇서 지난이십일일에산설이나면서심히고통하는고로 근처에잇는사람들이 의사의게진찰을하는것이 조흘듯하다함으로▲나며진남포부립병원의사와 산파를청하야 여다가 수술을하야무사히 아희는나앗스나 그아희는 곳숙엇는데 놀날만한일은머리의 상반부두개골이 도모지업서 뢰장을능히 볼수잇는괴형아라하며 그아희의시태는 강씨의게교섭하야참고용으로부립병원에 보존하여두게 되엿다한다 ▲평안남도양덕군에서는 포수가잘못하야 아해를 노루로알고총을노아쇠명이 위태한중상을당하게하얏다한다산양총을잘못간수하거나총을잘못노흔싸닭에 인명의사상이적지아니함은일년에몃차레식 듯는바인즉 총쓰는사람은무론이오누구든지여과대하야각별히 조심함이 긴요하다

모기장

網紗蚊帳 一人用	每件	五圓
同 普通間	每件	五圓五十錢
同 大間	每件	六圓五十錢 至八圓
西洋網紗蚊帳 普通間	每件	八圓五十錢
同 大間	每件	十圓五十錢 至十三圓
生綃蚊帳 普通間	每件	九圓
同 上	每件	十四圓 至十八圓
同 別生綃蚊帳	每件	廿二圓 至卅六圓
掛 劍 纓	每件	一圓五十錢

請求하실時에 左記價格을詳示하와보내옵소서 五件以上請求에對하야割引이有하고多小不關하고郵料는弊店에서負擔함

京城府公平洞七十番地 各種毛物製造商 各種蚊帳製造 李萬協

發芽保證 品質優良 **秋播種子**

品名	産地	價格
芝罘白菜	支那産	一合 八十錢 / 一升 六圓
開城白菜	結球	一升 二圓五十錢
京城白菜	松都産	一升 二圓五十錢
朝鮮菁根	訓鍊院産	一升 二圓八十錢
宮重菁根	訓鍊院産	一升 三圓六十錢
聖護院菁根	美味豊産 巨大	一升 二圓四十錢

御注文에應하야送料實費를請하옵니다

京城府大平通二丁目十一番地 朝鮮興農園販賣部 隆熙四年創業

一特別 金拾圓也 慶和堂藥房

眞正한奇藥 萬金의價値 木藥으로 特効보는症的

上海一帷에一趟店 여러분마음에滿足하도록 여러분에評判하 木地商況을參酌改善 上海法界太平橋 泰興洋鞋店

雜貨貿易 軍用韓服 人蔘 米穀 燒酒 開城林家藥業部出張所 金剛燒酒特約販賣店 仁川府外里一八〇番地 仁成商店 主 金振玉 主務 金成運

婦人에게만오는病을恨歎치마시오 이一藥이잇스니다

益母草엑기쓰

新時代는 如斯한實質本位의 藥品을要求함

朝鮮人의에게適하게製한本店의嚆矢 이藥은結核藥을試驗하야보시오

主治 冷病、冷痛、血氣不調、産前産後 ...

△支店及特約店所在地

製藥所 大盛堂藥房 朝鮮京城府[illegible]洞二三六

ClibPDF - www.fastio.com

女丈夫(녀장부)

(三八) 雲人 譯

만일서로 난호일써가 될바지아니하얏드면 장미는얼마나 황부위가의 탁이 되얏든지 쇄닷지를 못하얏슬 것이지마는 싱리별인지 영리별인지 다시맛날 기약도 업시 피차에 덕군으로 난호여갈일을싱각하매 비챵하고 고독한 마음을 진뎡할수업서 이사람의 보호를떠나서 누구를 의탁하고 세상을지내여갈가 지금까지 죽음을두려워 하지아는몸에는 도리혀새로히 잇지못할일이 싱겻다 만일장미의 마음이 이가치부위의게기우러진 줄을 당필원의게알리면 그는엇더한 싱각을할가 그가장미를위하야정성을쓰고힘을드린것은황부위의게질바가아니라 질만음의걸벽우에서 총을맛고 거구러진것도 다만장미를싱각한 싸닭이며 자긔목숨이죵각에달린 그써에도 오히려나를버려두고 장미를구하라고 종졸ᄯᆞᆼ이의게 부탁하얏슬 디경임으로 그가만일지금까지 병석에누어잇서 이일을알게되면 실망락담에 인해죽을것이오 또한신병이쾌복 되얏슬지라도 다시자리에눕게 될는지 모르는일이다 그러치마는 장미도어렷슬써부터 그와남매가치 자라난몸이라 이러한일로 그를이저버릴것은아니다 그를싱각하는 마음은

조금도변치 아니하얏스나 다만그를싱각하는 이외에 또한무의 의게향하야 지금까지 싸닭에 정이험이잇는 가장사랑스러운 칭이이러낫슴이다 그러나 맛나는것이나 리별하는 것이나 모도다뎡한운수이라 다시 엇지할수업슴으로 비창한마음을가슴에감추고 오히려 안개속으로 거려나가는데 커편으로부터 두어명의말이 달려오는소리가난다 부위「어이그 긔병이다 덕군인가공화군인가」 하고 장쇠의게향하야 못는동안에 말들은벌서안개를무릅쓰고부위의압헤지내왓다 탓든사람은 일은듯하야 브린안장으로 온것인고로 이것은다행하다고 부위와장쇠는 즉시 곱비를낙구어 세웟스나 붓잡앗다 부위와점말 하는이구하신것이다 자ー 장미씨 인커는우리가엇더케하다가 서로작별할는지 모르는것가 서로々 맏들라십시다 그리하고 이아해는가버우닛가 가저라산는것이 조흘듯합니다」 장미는 적은소리로 간신히「비ー」하고 일동이를떠러서 부위와 로도로ー 맏숨랏스나 지금까지부위와 서로안타든데 비하면 마동선으로부터 거루에 올마란 듯하다 이가치하야 얼마동안을 가노라닛가 로상에 몃개의사톄가엇다 부위는 이것을보더니 「우리공화군의 선봉머가 이근

커가지 뎡탐을와다가 덕군과충돌한것이로구나 사람수효가적은까닭으로 덕군의게패하야 이러케죽은것이다 우리가탄말도 이사람들의 말인것이 분명치아니한가 내가공화군에 잇기만하면 우리군사에게 이런치욕은 당케하지안치마는」 하고 매우원통한듯이 탄식한은 부하의병졸들은 장수의정리가잇다할것이다 그동안에 또엄마를나간즉 압길로부터 큰소리로 차옥리약이를하며 마조향하야오는 말탄군인 두사람이잇다 커우이개인안개속으로 대강은보이지마는 어느편인지는 분변하지어려움으로 부위는 갈자를 단々히잡으며 더욱자세히보랴하는데 장미는것흐로 「저사람은 우리군사의장교인데 말하는음성을드른듯한가 한사람은 중대장진씨올시다」 부위「그럿슴니다 려씨와진씨이면 나도포로되얏슬써에 맛난일이잇슴니다」 하는동안에 거편에서도 이편을자세히살펴보는 모양이더니 강바람에 거거가는안개사이로 황부위와 장쇠의푸른군복을 알아보고 덕군인것을 분명히판단하

얏든지 긔시총을들어 이편을쏘라하매 장미는당황히 소리를크게질러 「조곰가다리시오 나올시다 장미올시다」 하고 부르지즈다 의병에 약장미의일홈을모를자가 누가잇스랴 두사람은놀라면서 뛰여와서 황부위와동행인것을보고 「어ー어ー 덕군의부위가ー」 하며 더욱이 놀라고 탄복하는모양이라 부위는련연히 「비ー 나는그대의대장과약조한대로 장미를구하야 온것이오」 려씨「아ー그것은참 공화군에는 드러보지도못한 훌늉한 무사의행동이오」 황부위는 「무사의도리를 직히고 공화군의사관도 무사의도리를 직히시오」 이가치 직힌다는것이 조치만 면하는 포로의커디를 면하게되는 것은 나도 이켜 뜻밧게도 실참인데 장미는 그러한 얼골에 덕분의 상예는 나도 이켜 지호하기로하고 려씨와진씨는 장미의일을 무러보고 부위를향하야 「그대가덕군의부위요」

드리는것이니 친늘로 가지고 도라가시오」 부위는작별을하랴면서 「아니 가엽스닐이지마는 내가 우리진중으로도라가면 아모리 애를써도 그대의군사가 봉돌촌을 에앗지못할것이오」 려씨「그보다도 다시포로인나되지안토록 도망할준비이나 면커차려두는것이조켓지오」 서로긔세조흔작별인사를하는데 이쎄에 어느편으로부터온것인지 나라가는 탄환한개가 불행히장미가타고잇는말의 한편귀를마치매 말은깜작놀나서 펄々뛰다가 일동이진뎡식힐틈도업시 커편산모퉁이에 기발이보이는 공화군의 영문을향하야 비호가치 달녀갓다 아! 장미는천신만고로 겨우의병의진중에 도라오게된써에 또다시덕군의진중에싸지게되얏다 이것이운인가 또한수인가

군사가 커거까지와잇스면 그대의군사는 편안히 봉돌촌에 잇슬수가업겟지오」 려씨「과연그럿소이다 그대의군사가 우리보다먼저 봉돌촌을 압수림에옹거하야 오늘아츰 칙령한형세로잇소 우리부터 배진한형세로잇소 우리는압뒤로덕군을대하게되얏스닛가 오늘밤에는거어코 봉돌촌을벽아서가지고 그곳을지나서 남면의의병과 합할터이오」 자ー 이만콤군략을가르켜

배달기름
화장품중최고
京城苑洞二四
배달숍製
한병에四十五錢
京城鍾路東亞婦人商會販賣
머리기름중최고

水產品評盛況

이번 元山水產品評會는去十五日開會한以後頗히盛況을이루는바 元山의歷史가잇슴으로부터처음일뿐아니라 全朝鮮으로도稀有한事이라 稅關一萬餘坪敷地를利用하야第一會館、第二會館、明太館、海底館、水族館、參考館、演藝館其他興行場、構內食店、噴水池等陸上海上을連絡하야各種各樣의美麗宏壯한施設은觀覽者로하야금한번놀나지아니치못하게되얏고더욱히赤田橋上의會門은水中龍宮을像想케하야最히人氣를惹하며더욱出品點數는魚類貝類藻類漁具類參考品等二千餘點에達한바奇妙精巧한技術을다하야陳列하얏스며其中에受賞點數는七百二十三點인데此를一府十一郡에分하면▲優等元山一洪原二▲一等元山六洪原二德源一北靑二▲二等元山一四咸興一洪原一德源一文川三洪原九北靑五利原一▲三等元山五八咸興九安邊一洪原三文川三永興一五洪原三五北靑一二利原一〇端川一合計褒賞三、一等一、二等三五、三等一五七、褒狀五一七等이오今日外지의入場者狀況을보면開會當日八千五百九人十六日一萬三百三十九人十七日六千五百三十八人十八日六千九百十八人이라는可驚할數字를示하는同時에昨今은各地方으로부터來集하는海水浴客等을合하야非常한紛雜을呈하는中임으로元山을觀覽하는人士는一擧兩得의絶好機會가되겟스며더욱히今番水產品評會는地利와時機가모다適宜할뿐아니라一般水產事業의知識普及上多大한効果를收하리라더라(元山)

信明同窓生講演會

大邱私立信明女中學校卒業生同窓會에서는來八月一日總會를畢한後連續하야同日下午八時三十分부터講演會를開催한다는대場所는南城町禮拜堂이라더라(大邱)

信明同窓總會召集

大邱私立信明女中學校卒業生同窓會에서는來八月一日上午十時에總會를召集한다는대場所는南城町禮拜堂이라더라(大邱)

大邱夏期講習會

大邱府壽町私立明新女學校內에서七月二十八日부터八月二十八日外지前英語速修學院長金世徵京城高等工業學校講師柳延洛兩氏의主催로夏期講習會를開催한다는대講習生은男女를共募한다하며科目은如左하다더라

一、英語科 讀本一卷部三卷部
一、數學科 算術部代數部(大邱)

大田鐵友會創立

滿鐵大田驛及機關區列車區外其他從事員으로組織한鐵友會가範圍를延長하야一般從事員도加入하게되얏는바去二十五日下午七時부터大田果李範周氏第에서各區代表外多數가來參하야創立總會를開하얏는데鐵友會는果然鐵道從事員들이團集한會議얏스며現今에는四十餘名이나從事員百數十人이從此加入되리라하며諸般事項을順次討議한後閉會하얏는대當選된任員은如左하다더라 會長鄭彭毅副會長金明俊總務李吉用幹事金年涉金濮洙高鳳根朴三萬徐內昌文千根梁在健會計柳昌浩金敬幸書記吳秉宅李宗珪(大田)

宣川親興會續報

宣川親興會를組織한다함은既報하얏거니와去二十四日午後三時本願寺에서發起人第二回總會를開하고會則議定이畢了하얏슴으로來八月十日外지會員募集할터이요八月十四日午後一時天道敎區室에서創立總會를開할豫定인바地方人士는多數來參하기를希望한다는바該會의目的及事業을紹介하면左와如하더라

一、目的은會員의智能을啓發하며地方發展을圖함으로써目的함
二、事業은會員의智識及體育向上을圖하기爲하야適當한施設을行하며地方의弊習惡俗의改善을圖하고公共事業을援助하며勤儉貯蓄을奬勵하고公共團體及官公署의諮問에應함인대會員의資格은滿二十歲以上男子로原籍은不問하고宣川에現居住하는者로한다더라(宣川)

山亭夏期講演會

新義州光城面城外洞山亭敎會堂에서는海外及各地留學生諸氏의夏期歸鄕을利用하야七週間每週日曜日午後三時부터講演會를開할터인데日割과演士는如左하다더라 七月三十日吳祥玉采世奉八月六日李鳳首金學銓八月十三日李道源方正啟八月廿日李鳳首金學銓

京都留學生學友會巡廻講座

(目科) 社會의觀念 民族文化의意義 半島經濟界의進路 우리글의가로쓰기 現代生活과科學智識 西有引力으로相對性原理

期限 自七月二十八日 至八月三日 (自下午七時半)

場所 東亞講習所內

聽講料 金五十錢也(開講期間通用)

聽講券販賣所 靑年會聯合會事務所 東亞婦人商會 (但開講中은東亞講習所內)

後援 朝鮮靑年會聯合會

主催 東亞日報咸興支局 第一回咸南庭球大會

時日 八月四、五兩日間
場所 共進會豫定地
申込所 東亞日報咸興支局
申込期 八月二日까지
申込組數 每團體三組式
申込金 每團體參圓式

八月二十七日金堤發韓聖福九月三日張成栻孔在徵(新義州)

順道傳道一回發程

大邱府南城町順道學校敎員中七八人이順道傳道隊를組織하고京泰根氏가隊長이되여慶南北各地로巡廻傳道한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同隊에서는漸々準備가完成되야第一回發程한다는대慶南各地를巡廻한後에는慶北各地로第二回巡廻를하리라는바慶南各地日割과地名은如左 八月二日馬山、三日統營、四五日三千浦、七八日晉陽、九十日晉州、十一日丹城、十二三日居昌(大邱)

忠南署長會議開會

忠淸南道廳에서去二十四日부터同三日間管內各署長會議를開하얏다는데長谷川大田署長은今般間島에出張中임으로正木警部가參席하얏다더라(大田)

湖日親睦會組織

大田에서發行하는湖南日報社에서社員一團을團結하기爲하야同社의發起로同社長李圭源君外二十餘名은精神的親睦會를組織하얏는데目前에總會를開하고任員을選定하얏다는바該會는親睦과體育으로目的하야一層和睦에勵하고諸般事業을完成케되얏다더라 會長李正一副會長鄭甫洙總務李時鎬體育部長徐丙配會計李圭源(大田)

鳳山講習學父兄會

京義線沙里院鳳山講習所에서는七月二十二日下午二時鳳山靑年會館上에서學父兄會를開한바男女學生의唱歌가有한後所長康昌楷氏의勸辭와生徒放學期間의注意及其他協議가有하얏다더라(沙里院)

鎭川面愛人病院

忠淸北道鎭川郡鎭川面邑內里朝鮮耶蘇公會의經營인愛人病院은實로朝鮮에는稀有한病院임은一般이共認하는바每日患者百餘名을治療하되더욱히北病院의名과如히要人的으로貧困者를爲하야無料治療뿐아니라親切이無比임으로遠近을不拘하고多數患者가來하는데來八月十日로九月九日外지는定期休業이라더라(鎭川)

●德盛敎員慰安會 京義線沙里院德盛學校에서는夏期放學臨期를機會로敎員의努力을慰安하기爲하야去二十二日土城面附近에서慰安會를開하고職員及敎員間에一日歡樂하얏다더라(沙里院)

各地靑年團體

◉碧潼郡公西面長의聲譽 平北碧潼郡城南面公西面長桂氏는面長에就任이十餘年이오道評議員에就職한지數年에貢獻이不少한바諸般公事에精明勤實하며敎育及農商에熱心奬勵함으로境內의文化普及이顯著하며山林及蠶業의興旺함이他地方에比하야優越함으로人々이稱頌이라더라(碧潼)

半島苦學親睦巡劇

本月二十三日忠南公州에來到한半島苦學生親睦會巡廻劇團은當地東亞日報支局과公州靑年會의後援으로當夜錦江館에서興行하얏는데觀衆滿場의盛況을일우엇더라(公州)

솝리靑年會總會

湖南裡里「솝리靑年會」에서는七月二十二日午後五時當地天道敎堂內에臨時總會를開하고煩弊와外華는全히打破하고모든것을更하고任員을改選한바其氏名은如左하다더라 會長金丙熙總務林仲桓內務幹事李鎬洙李在炫金台圭外務幹事李長洙金仁炯吳秀根(益山)

留學生傳道隊來沙

在東京基督敎靑年會朝鮮內地巡廻傳道講演隊一行은七月二十四日沙里院西部禮拜堂內에서傳道講演을開하얏는데聽衆의盛況으로써開催하얏다더라(沙里院)

女靑年敎討論會

平北定州邑內耶蘇敎會內女子靑年敎育會에서는今月二十四日下午四時同禮拜堂內에서學藝部主催로同部長洪宗賢氏司會로討論會를開하고名擧가勝於生命이라는題로可否兩便의論戰又는辯論이有한바勝利는否便에歸하얏스며演士의氏名은如左하다더라 可便演士吳順京洪瑞俊否便演士文京順朴俊淳(定州)

鎭川懿法靑年創立

忠淸北道鎭川郡邑內耶蘇敎監理會는方今信者가近二百名이나敎會內에靑年會가無함을恒常遺憾으로思할뿐아니라一般이渴望中에잇섯더니去二十三日午後九時同敎會禮拜堂內에서懿法靑年會創立會를開하니當日參席員이七十餘名이더라臨時會長金應泰氏의簡單한說明이有한後任員을選定한바其氏名은左와如하며同十一時頃에閉會하얏다더라 會長金應泰總務方興根書記鄭鎭成會計柯寬杭宗敎部朴聖浩文敎部朴泳稀社交部李殷鉉李培民運動部趙炳鎬(鎭川)

永康靑年衛生講話

康翎市永康靑年會에서는本月二十二日午後八時부터康翎公立普通學校에서衛生講話를開催하얏는데聽衆이約二百名에達하야盛況을致하얏다더라(康翎)

入院隨意 百濟醫院 院長 醫學士 崔鋪海 本院에서는朝鮮醫學의特長을設置하야漢方이며도兼掌하옵나이다 釜山府草梁入口 電話 八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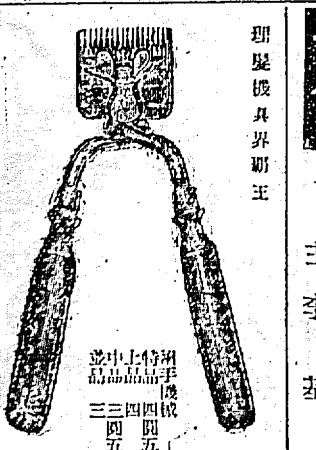
開城特產 開城白菜種販賣 白菜新種 時勢 上品 地方注文은小爲替로 開城北本町一九 松京商會菜種販賣所

職業紹介 求職諸位는長久하야一日二三圓의純益을得하는 新式發明 洋襪機械 特約店도募集 大邱府南城町二番地 歐米洋襪及編織機販賣店

速成 洋服裁斷生大募集 仁川府龍岡町八番地 半島洋服實習所

모기장 모기장外개팝니다 서양먹사 일본망사 同 생초 주란사 但各種籐杉籐吐手製造함 京城府公平洞六九番地 海龍商會 主李基煥

理髮機具界覇王 理髮機直輸入商 地方注文迅速呈送 京城鐘路一丁目三九番地 長美商會 特品 上品 中品 並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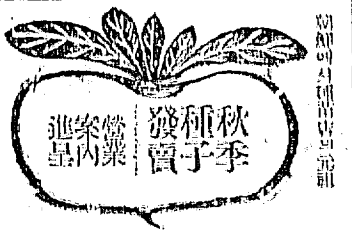
營業種目 綿絲布、諸織物、開城木 松草甲、草笠、白菜種子 地方에는代金引換으로하며其他는注文에依하야酬應함 開城南本町一二〇 薛俊浩商店 電話六(セン) 振替京城四〇八五

우리의生活安定은그무엇부리?
建築業은本會社의一大使命
◎本材商은來하라 福利의열쇠를며기겟스며 營林廠과特約(大口販賣契約)하고木材를販賣하오니多少不拘하시고注文하여주시오
新義州 平安商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崔□□
◎建築師는드르라 本會社의抱負를披歷하리로다
營業은販賣와木材商의大會
酷이 문을두다리는자에게열이준다

好職業 月四千七百餘圓純益 無難得한道具一切無料貸與製品永久買受 朝鮮大邱府男町十九番地 東亞二藥ゴム商繪 滿鮮總本部

七月廿九日부터寫眞全部差換 南方의碧血 一睡之夢 四美人 團成社

京城勸農園本店 秋季種子發賣 南大門支店



慶南三千浦 壽一醫院 醫師朴永周 獨逸製六〇六號注射 新發明淋病金治注射 施行

靑柳南冥著 (菊版洋製九〇〇頁) 朝鮮四千年史 (全一冊) 定價金五圓(送料十錢) 好評六版發賣 朝鮮의歷史를知하시라면必히本書를讀하시오 殘部僅少 發賣元 京城本町二丁目 巖松堂書店 (振替京城二四五四)

마음에드는物貨를購買하시라거든 百貨가다具備한大同婦人商會로 平壤府水玉里五六 大同婦人商會

梨南商店 主 韓衡圭

ClibPDF - www.fastio.com